



짐바브웨 (Republic of Zimbabwe)

1. 국가 개황

일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 적 : 390.6천 km² (한반도 1.8배) • 수 도 : 하라레 (144만명) • 인 구 : 11.4백만 명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 어 : 영어(공용어), 토착어(Shona어 등) • 종 교 : 기독교(25%), 토착신앙(24%) 등 • 민 족 : Shona족 82%, Ndebele족 14% 등
정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일 : 1980. 4. 18(영국) • 정치체제 : 공화제(대통령중심제) • 국가원수 : Robert Gabriel Mugabe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 회 : 양원제(상원 93석, 하원 210석) • 정 당 : ZANU-PF, MDC 등 • 대외정책 : 실리외교 추진
경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 14억 달러(2009) • 1인당 GDP : 105 달러(2009) • 화폐단위 : Zimbabwe Dollar(Z\$) • 회계연도 : 1.1~12.31 • 국제기구가입 : UN, IMF, SADC, IBRD, AU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 : 서비스업(59%), 제조업(23%), 농업(18%) • 주요수출품 : 백금, 면화, 담배, 금, 합금철 등 • 주요수입품 : 기계-운송장비, 원재료 및 연료 등 • 부존자원 : 석탄, 크롬광, 석면, 금 등 • 국제신인도 : OECD 7등급

2. 주요 경제 지표

	단 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 제 성 장 률	%	-4.6	-5.6	-14.4	-1.3	2.5
재 정 수 지 / GDP	%	-11.4	-8.7	-6.2	-6.3	-5.0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	1096.7	24,411.0
환율(달러당, 연중)	Z\$	164.36	9,675.78
경 상 수 지 / GDP	%	-18.9	-23.9	-38.9	-62.1	-42.7
수 출	백만 달러	1,675	1,555	1,396	1,213	1,503
수 입	"	2,040	1,975	1,912	2,413	2,775
외 환 보 유 액	"	139	117	96	351	277
총 외 채 잔 액 / GDP	%	125.3	149.0	189.8	192.3	191.2
D S R	%	16.1	16.8	20.0	16.2	19.0

3.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관계수립	1994. 11. 18. 수교 (북한과는 1980. 4)		
주요협정체결	협정명	서명일	발효일
	"없음"		

4. 양국간 무역 및 투자현황

① 무역현황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1~4월)
수 출	14	9	14	5
수 입	50	38	5	1
무역수지	-36	-29	9	4
교역규모	64	47	19	6

② 한국의 對 짐바브웨 수출 상위 5대 품목 (2009년 기준,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2008		2009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합성수지	0	-86.2	6	1,263.2
2	의약품	3	45.0	4	15.1
3	정밀화학원료	0	-89.9	1	1,475.4
4	정밀화학제품	1	131.0	1	-11.9
5	인조섬유장섬유사	0	-	1	-

③ 한국의 對 짐바브웨 수입 상위 5대 품목 (2009년 기준,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2008		2009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니켈피릿스크랩	30	-18.6	2	-92.3
2	연초류	5	17.4	2	-67.6
3	기타비금속광물	1	58.5	1	-9.2
4	기타가죽	0	-29.8	0	-48.3
5	가죽제가방	0	-	0	-

④ 양국 간 투자현황 (총 투자기준, 천 달러)

	2007	2008	2009	누계
한국 → 짐바브웨	“없음”			
짐바브웨 → 한국				

⑤ EDCF 지원 (백만원)

사업명	승인일	승인금액	비 고
“없음”			

5. 최근 동향

□ 국내 경제

- **(경제성장)**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 조치, 저조한 FDI, 낮은 저축률, 농업부문에서의 비효율성 등으로 짐바브웨는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수년간의 마이너스 경제성장 이후 2010년 짐바브웨는 약 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짐바브웨의 재정수지는 2006년 GDP 대비 11.4%를 고점으로 2009년에는 6.3%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향후 IMF 등 국제사회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는 무가베(Mugabe) 대통령의 연임여부가 재정수지 건전성 개선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물가상승률)** 2008년 10,000,000%를 넘는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상승률은 2008년말 달러 사용 가능 조치가 취해지면서 2009년에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2010년에는 임금 수준이 다시 상승하고 국제 원유가격 및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다시 상승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대외 경제

- **(대외거래)** 해외근로자 송금 및 대외원조에 힘입어 경상이전수지는 흑자를 기록 중이나,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모두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중임. 2008년 GDP 대비 39.2%를 기록한 경상수지 적자는 2009년 60.5%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환율)** 무가베 대통령과 고노(Gono) 중앙은행 총재는 짐바브웨 달러 사용을 주장하는 반면, 짐바브웨의 민간기업들은 결제의 편의를 위해 남아공의 란드화(Rand)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등 환율문제는 짐바브웨의 민감한 정치사안 중 하나임.
- **(외채상황)** 2008년 총외채잔액이 GDP의 180%, 총수출의 200%를 상회하는 등 짐바브웨의 외채상황은 심각한 편임. IMF와 세계은행의 PRGF 자금에 대한 연체상황 지속으로 2001년 9월 이후 PRGF 수혜 대상국에서 제외된 상황임.

□ 정치 및 사회 안정

- **(정치상황)** 2009년 2월 여야 통합정부 구성에 성공한 무가베 대통령의 ZANU-PF당과 창기라이(Tsvangirai) 총리의 MDC당은 헌법개정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중임. 특히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MDC는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ZANU-PF당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당분간 정치 불안정은 지속될 전망이다.
- **(사회안정)** 2007년 10월 인플레이션이 10,000%를 상회하는 등 경제불안정 확대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짐바브웨 정부가 강경 진압하자 미국 및 EU 등 주요 서방국가들은 짐바브웨에 대한 제재조치(여행금지, 자산동결, 무기금수 등)를 연장함.

□ 국제관계 및 정책성과

- **(국제관계)** 서방국가들은 짐바브웨 정부의 토지개혁 강행과정,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 야당언론 탄압 및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짐바브웨에 경제원조를 중단하고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짐바브웨는 서구의존에서 탈피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추진. 그러나 2009년 2월 여야간 통합정부 구성 계기로 창기라이 총리는 실리외교 추진을 천명함.
- **(지역관계)**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회원국으로서 2003년 부의장국 지위를 수행하였으며,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회원국으로 남아공 등과 더불어 활동중임.
- **(정책성과)** 2009년 2월 탄생한 통합정부는 단기경제회복프로그램(Short Term Emergency Recovery Program)을 발표하면서 성장위주의 경제프로그램 이행, 산업제반 생산성 향상 및 고용 창출 등의 정책을 추진중이나 구체적인 이행조치 및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등급

- OECD : 7등급 (2008. 10) → 7등급 (2009. 10)
- ICRG : 140/140 (2009. 4) → 139/140 (2010. 3)
- I.I. : 177/177 (2009. 3) → 177/178 (2009. 9)
- Euromoney : 186/186 (2009. 9) → 186/186 (2010. 3)